단일통로 복강경 담낭절제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한형준, 최새별, 김정윤, 이진석, 김동식, 김완배, 송태진, 서성옥, 김영철, 최상룡

연구목적: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복강경 수술로, 담낭질환의 치료원칙이다. 최소침습수술의 발전으로 절개창의 숫자와 크기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진행되었고 이는 단일통로 복강경 수술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저자들은 단일통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경험을 발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담낭결석과 담낭용종을 가진 1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급성 담낭염, 담관염이 동반된 담낭염, 상복부 수술병력, 담낭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수술 결과와 합병증을 임상병리인자와 수술인자에 따라 분석하였고, 기존 복강경 담낭절제술로 전환한 경우와 단일통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성공한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환자의 평균나이는 44.0 ± 13.6 세였고, BMI는 $23.6\pm3.1~kg/m^2$ 였다. 합병증은 2예의 담관 손상과 4예의 창상감염이 있었다. 단일통로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중 44례에서 Calot 삼각을 확인하기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수술전 ESR, CRP 및 WBC의 증가, 수술 시간의 증가, 수술 중 담즙 누출이유의하게 관찰되었다. 기존 복강경 담낭절제술로 전환은 14예에서 발생하였다. 기존 복강경 수술로 전환된 경우에서 환자의 평균 연령이 더 높았고, BMI가 증가할 수록 전환률이 증가하였다.

결론: 단일통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초기에 복강경 수술의 경험이 많은 수술자가 잘 선택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다. BMI가 높거나 급성 담낭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기존 복강경 담낭절제술로의 전환이나 추가적인 견인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